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74호

2025년 11월 9일(다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 로 연락 바랍니다. - 김미아 헬레나 Cell : 808.291.7811			



오늘의 미사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 1독서 : 에제키엘 예언서 47,1-2.8-9.12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 리라. ◎
▶ 화답송 :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 처를 즐겁게 하네.	
▶ 2독서 : 코린토 1서 3,9ㄴ-11.16-17	▶ 복음 : 요한 2,13-22

① 11월 16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② 11월 16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고해성사는 미사 전후 고해소에서 있습니다.

④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 부탁드립니다.

⑤ 사제연수 관계로 11월 18일~21일까지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⑥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11월 16일~22일)

⑦ 매월 넷째 주 11월 23일(일) '한끼 나눔'

⑧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목공지



사목위원회

※ 교육분과 공지

교리교육 주제

- 11월 9일: 선교하는 교회
 - 11월 16일: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
- 시간: 오전 9시, 장소: 예비자 교리실

교리에 관심있는 신자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구역 및 단체

① 다락방 모임

일시: 11월 9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② 카이무키 구역 모임

일시: 11월 9일(일) 오후 5시
문의: 황성자 마리아 220-0822

③ 쉼렉 구역 모임

일시: 11월 11일(화) 오후 5:30
장소: 새신자 교리실
문의: 이명노 비오 227-5630

④ 연령회 모임

일시: 11월 16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⑤ 하와이카이 구역 모임

일시: 11월 23일(일) 오후 6시
문의: 김 글라라 349-2654

⑥ 와이파후 구역 모임

일시: 1월 29일(토) 오후 6시
문의: 안 마르첼라 391 8347
장소: 새신자 교리실

※ 과달루페 성지순례자 모집

일시: 2026년 4월 26일(일) ~ 5월 1일(목)

인원: 선착순 35명

비용: \$2,230 / 2인 1실 (독실 \$440 추가)

신청: 박 로렌 엘리사벳 (전화: 382-9221, Laurenpak33@gmail.com)

※ 주일학교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장해경 소화데레사. 광성미 루시아

※ 주일학교 및 자모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일학교 및 자모회 기금 마련을 위한 장터 시장이 열립니다.

일시: 11월 22일(토) 4시 미사 후, 11월 23일(일) 교중미사 후

판매품목: 빵, 깻잎, 고추지, 양배추 김치, 냉우동 샐러드 및 소스, 된장,
우리 성당 로고가 들어간 가방 및 텀블러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헌금

11월 8/9일 Archdiocese for the Military Services USA 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11월 1/2일 : \$9,161 (한끼나눔 제외)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10명
	주일헌금	교무금	한끼나눔	특별헌금		
	\$3,253	\$5,280	\$1,724	\$628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

※ 미사 : 보편교회에서 중시하는 미사의 요소 - 침묵

이번 편에서는 보편교회가 중시하는 미사의 요소, “침묵”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편에서 미사의 중요한 요소로 “능동적 참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능동적 참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침묵”입니다. 전례헌장 30항을 보면,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라는 제목 안에 “거룩한 침묵도 제때에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곧 우리가 미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자세가 “침묵”입니다.

다음은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45항 “거룩한 침묵”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룩한 침묵은 거행의 한 부분이므로 제때에 지켜야 한다. 침묵은 각각의 거행에서 이루어지는 순간마다 그 성격이 다르다. 참회 행위와 기도의 초대 다음에 하는 침묵은 저마다 자기 내면을 성찰하도록 도와주고, 독서와 강론 다음에 하는 침묵은 들은 것을 잠깐 묵상하게 하며, 영성체 후에 하는 침묵은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기도를 바치도록 이끌어준다.”

이 부분에서는 미사의 각 요소에서 언급되는 침묵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의무이며,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데 중요한 요소로 제시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침묵”의 중요성이 사라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 중요성이 희미해졌습니다. 침묵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침묵을 통해 말함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말을 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듣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요소이며, 나아가 미사 안에서도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사 안의 거룩한 침묵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침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경우, 미사에 참석한 이들을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교회가 제시하는 “거룩한 침묵”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비에 더욱 깊이 몰입하게 하고, 하느님의 말씀과 공동체가 함께 바치는 성가와 기도,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영적 일치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즉, 단순히 말을 하지 않음이 침묵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하느님과 의 일치를 이루려 함이 미사 안의 침묵이 갖는 참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미사 안의 침묵은 능동적으로 미사에 참여하려는 우리에게 매우 합당한 자세입니다



알아드립니다

※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강론 요약본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은 단순히 한 건물의 봉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라테라노 대성전은 교황이 로마 주교로서 좌정하는 공식 주교좌 성당으로, 모든 성당이 영적으로 연결되는 중심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축일은 보편 교회의 일치와 성스러움을 기념하며, 하느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신앙을 되새깁니다.

라테라노 대성전은 324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세워졌고, 여러 차례의 파괴와 복구를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건물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키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는 하느님의 일꾼이며, 너희는 하느님의 집"이라고 말하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강조합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을 전하며, 참된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려는 예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시며, 그분의 몸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이 만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곳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인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은 "참된 성전은 우리 안에 있다"는 메시지를 상기시키며,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신앙과 사랑을 우리의 내면에서 실천하도록 초대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물질적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숨결이 흐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세워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집을 세우는 책임을 지고, 성전을 지키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은 또한 교회의 보편적 일치를 상징하며,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살아 있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 성소 인식 주간 요약:

‘성소 인식 주간’은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삶의 길을 부르시는지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부드럽고 인내심이 많으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첫걸음은 ‘듣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성소의 본질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소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며, 가정과 본당 공동체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다르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소를 키우는 일은 공동체의 기도와 응원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은 열매를 맺습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